

‘더민주전국혁신회의’, 민주당 내 신주류 ‘급부상’

31명 당선... 당 현안 주도 가능성
광주 양부남·박군택·정진욱 등 포진
의원 대표단 민형배는 전략위원장
당내 민주주의 실종 우려 목소리도

강성 진이재명(진명)계 조직인 더민주
전국혁신회의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
주당 최대 의원 모임으로 떠올랐다.

이재명 친위대를 자처하는 이들은 차기
국회에서 당내 의사결정의 키를 쥔 핵심
그룹으로, 당 현안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
되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다.

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, 지난해 6월 진
명계 원외의 조직으로 발족한 혁신회의는

이번 총선을 통해 민주당 내 신주류로 급
부상했다.

22대 총선에서 총 50명이 출마해 31명
이 당선됐다.

상임대표는 ‘비명 때리기’에 적극적이
던 김우영 당선인이다. 강원도당위원장에
로 비명계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
은평구에 출마해 지도부로부터 공개적인
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탄탄한 지역 조직
을 앞세워 국회에 입성했다.

이재명 대표의 ‘호위무사’로 불리는 양
부남 전 고검장을 비롯해 박군택, 김기
표, 이근태, 김동아 등 ‘대장동 변호사’ 5
명도 모두 혁신회의의 소속이다.

정진욱, 김문수, 김현정 특보 등 이 대

표를 가까이에서 보좌한 이들과 이재강
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조계원, 윤종균
전 경기도 수석, 모경종 청년비서관 등 성
남시장과 경기지사일 때 함께 일한 이들
도 눈에 띈다.

선거 막판 막말 논란을 일으킨 원외의 ‘진
명’ 김준혁·양문석 당선인도 같은 모임으
로 22대 국회에서 이 대표 체제를 강화하
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.

혁신회의의 구성원이자 이 대표가 창립
멤버인 ‘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
(KDLC)’ 출신의 황명선·채현일 등이 국
회에 입성했고, 의원 대표단인 민형배, 강
득구, 김용민 의원은 나란히 재선에 성공
했다.

당직 개편에서 김우영 당선인은 당 대
표 정무조정실장, 충남 상임대표를 맡고
있는 황명선 당선인은 조직사무부총장,
민형배 의원은 전략기획위원장에 기용됐
다.

혁신회의의 막강한 위상은 지난주 당선
자 간담회에서 확인됐다.

이날 모임엔 민주당 국회의장 출마자와
원내대표 후보가 모두 참석해 혁신회의의
당내 위상을 보여줬다.

혁신회의는 차기 국회의장 경선을 주시
하며 입김을 넣을 태세다.

이들은 이날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
회의장을 겨냥해 “기계적 중립과 여야 합
의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사로잡힌다면,

국민과 역사는 김 의장을 무책임한 의장
으로 기억하고 기록할 것”이라고 쏘아붙
였다.

혁신회의의 당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,
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.

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될 것이라 우려가
가장 크다.

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
그룹이 한 목소리로 움직이고, 당내의 다
양한 목소리가 없어지면 당내 민주주의는
사라지고 외연을 넓히는데도 악영향을 끼
칠 것이라며 특정계파가 당의 의사 결정
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
오고 있다.

서울=김선욱 기자 seonwook.kim@jnilbo.com

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 본회의 ‘통과’

국회가 2일 김영주(사진) 국회부의장
사임의 건을 가결했다.

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
회부의장(김영주) 사임의 건을 상정해 재
석 의원 254명 가운데 찬성 186명, 반대
64명,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.

김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몫 21대 국
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선출됐다. 하지
만 4·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하위 20%를
통보받았다는 이유로 민주당을 탈당해 국
민의힘에 입당했다.



김 부의장은 총선 전
마지막 본회의가 끝난
뒤 지난 3월4일 김진표
국회의장에게 사직서
를 제출했다.

김 부의장은 당시 “오
늘 오후에 국회의장을 뵈고 사직서를 제
출할 것”이라며 “민주당 몫으로 부의장이
됐으니 민주당을 떠나면서 부의장직을 내
려놓는 것은 당연하다”고 밝혔다.

서울=김선욱 기자

박미정 시의원 “난자동결시술비 ‘반쪽짜리’ 지원”

광주시가 올해 추진 예정인 난자동결시
술비 지원사업이 ‘반쪽짜리’ 정책으로 전
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.

광주시의회 박미정(더불어민주당·동
구2·사진)의원은 지난 1일 제324회 임시
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의에서 “가임력 보
존을 원하는 여성의 난자동결시술비 지원
사업에 보관료와 입원료, 사후관리 대책
이 제외돼 있다”며 “경제적으로 어려운 저
소득층 30~40대 여성의 장래 출산율을 높
이기에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”고



비판했다.
난자동결시술비 지
원사업은 광주에 6개월
이상 거주한 20~49세
여성(중위소득 180%
이하)을 대상으로 난소

기능 저하에 따른 항물러관호르몬이 일정
기준 이하인 경우 첫 시술비의 50% (최대
200만원)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. 시설
을 갖춘 타 지역 병원도 이용 가능하다.

김은지 기자

채은지 시의원 ‘묻지마 범죄 피해 지원 조례’ 발의

광주에서 이상동기 범죄(묻지마 범죄)
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된
다.

광주시의회는 채은지의원(더불어민주
당·비례·사진)이 대표 발의한 ‘광주시 이
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
례’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
다고 2일 밝혔다.

이상동기 범죄는 명확한 범행 동기 없
이 때와 장소, 상대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
다수를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
범죄다.



조례안에는 불특정
다수를 대상으로 하는
이상동기 범죄를 예방
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
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
을 규정했다.

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이상동기 범죄
예방과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
수립·시행해야 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, 환
경 개선, 피해자 심리·법률 상담, 의료비·
구조금 지원 연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.

김은지 기자

이귀순 시의원 “시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‘전시행정’”

광주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
추진과정에서 학생과 현장의 목소리가 무
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
광주시의회 이귀순의원(더불어민주
당·광산구4·사진)은 2일 시교육청 추가경
정 예산심의 과정에서 “교육청이 충분한
교육적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만들지
않은 상태에서 기기 보급에만 급급했다”
며 “교육적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고, 현
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
전시 행정으로 스마트기기만 사주면 그
스마트 교육인 것처럼 했던 교육청 태도



가 큰 문제다”고 질타했
다.

이 의원은 “전체 학교
에서 스마트기기를 다
활용하지 않고 있다”며
“현장에서는 보급된 스
마트기기 10% 활용해도 많이 활용하는
것이다. 교육청도 학교도 선생님도 준비
가 돼 있지 않아 보급된 학교 30여 군데만
돌러봐도 학교 창고에 방치된 스마트기기
가 1700대가 넘는다”고 지적했다.

김은지 기자

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영덕·백승아 더불어민주당연합 공동대표 등이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-더불어민주연합 합당 수입기관 합동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뉴시스

민주연합 합당 마무리... 민주당 의석 총 171석

22대 국회 161석서 10석 늘어
이재명 “국민 부여 큰 책임 수행”
윤영덕 “더 강한 정당 거듭날 것”

더불어민주당과 4·10 총선용 더불어민
주연합 간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22
대 국회 민주당 의석이 161석에서 171석
으로 늘었다.

민주당-민주연합 합당수입기관은 2일
오전 국회 본청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‘더
불어민주당-더불어민주연합 합당 의결의
건’을 의결했다.

이재명 대표는 합당 의결에 앞서 머리
발언에서 “민주연합은 민주당과 함께 하
는 일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다”며 “국
민들도 그 점을 숙지하고 민주연합에 민
주당의 표를 몰아줬다고 생각한다”고 말
했다. 그는 “민주당의 승리는 국민들이 민
주당에 상을 줬다기 보다 국민의힘을 심
판한 결과란 측면이 매우 크고, 우리에게
상이 아니라 책임을 부과한 것”이라고 봤

다.

그는 “국민들의 삶이 참으로 어렵다. 객
관적인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, 정부 여당
의 태도 역시 이번 선거의 결과로 크게 바
뀐 것 같지 않다”며 “이 나라 국정을 책임
지고 있는 정부 그리고 여당조차도 그 심
각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만
큼 제대로 체감하고 있는지가 매우 의문
스러울 정도”라고 우려했다.

그는 “민주당과 민주연합이 하나의 몸
이 됐고 더 강하게, 더 크게 변신하게 됐
다”며 “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큰 책임을 최
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
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다짐했다.

윤영덕 민주당연합 공동대표는 “민주연합
이 거둔 성과인 지지율 26.69%, 그리고
14석의 의석은 바로 주권자 국민께서 만
들어주신 것”이라며 “연합정치의 역사적
가치에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
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진심
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”고 했다.

그는 “이번 총선을 통해서 연합정치의
가능성과 모델을 얻었다”며 “민주당은 우
리 사회의 범민주개혁 세력의 농축된 연
대의 힘까지 받아안고 더 강한 정당, 더 유
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게 될 것”이라
고 강조했다.

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, 사회
민주당, 새진보연합 등 진보군소정당과
시민사회가 연대하는 민주연합을 비례선
거용 정당으로 띄웠다. 선거에서 당선된
14명 중 민주당 몫 후보 8명과 시민사회
몫 후보 2명은 민주당에 합류했고, 나머
지 4명은 선거 후 본래 정당으로 돌아갔
다.

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중앙위원회를
 열고 양당 합당을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
 했으며, 투표에 참여한 중앙위원 중
 96.4%가 찬성해 사실상 합당 절차가 마
 뉘었다. 민주연합 흡수합당으로 민주당
 22대 국회 의석은 총 171석으로 늘었다.

서울=김선욱 기자

김승남 “이상기후 별마늘 피해 자연재해 인정해야”

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
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(고흥·보성·
장흥·강진·사진)은 2일 “일조량 부족, 잦
은 비 등 이상기후로 발생한 별마늘 현상
(2차 생장피해)으로 생산능가가 큰 어려
움을 겪고 있다”면서 “별마늘을 신속하게
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
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”고 밝혔다.



수확기를 앞둔 전남
지역 마늘 재배면적은
3443ha다. 이중별마늘
피해면적이 약 20%로
추산되고 있다. 별마늘
현상으로 마늘쪽 하나
하나의 크기가 너무 작아 상품 가치가 크
게 떨어져 정부나 농협 수매에서도 처분

이 어려운 실정이다. 생산량 감소와 가격
폭락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수
급대책이 필요하다.

김승남 의원은 “농식품부 농어업재해대
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별마늘 피해를 자연
재해로 인정하고, 재해복구비 지원 등 피
해농가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
달라”며 “올해산 마늘 전체 생산량의 10%
를 공공비축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수
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곽지혜 기자